

# 파오핑이 만든 어휘문제1

---

(지문 내용 중)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화폐를 ㉠기증(寄贈)함으로써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문제) 다음 중 ㉠과 바꿔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은?

- ① 기부(寄附)함으로써
  - ② 증정(贈呈)함으로써
  - ③ 증여(贈與)함으로써
  - ④ 선사(膳賜)함으로써
  - ⑤ 선물(膳物)함으로써
- 

두근 두근 정답은?

①번 입니다!

① 기부(寄附)하다 :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다.

② 증정(贈呈)하다 : 어떤 물건 따위를 성의 표시나 축하 인사로 주다.

③ 증여(贈與)하다

1. 물품 따위를 선물로 주다.

1. <법률>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다.

④ 선사(膳賜)하다 :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에게 선물을 주다.

⑤ 선물(膳物)하다 :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다.

## 파오핑이 만든 어휘문제2

---

(지문 내용 중)

부모가 의리에 합치하지 않음을 행(行)할 때, 자식은 온화한 낯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써 간(諫)하여 반복 개진(開陳)하여야 함을 ㉠유념(留念)해야 한다.

(문제) 다음 중 ㉠과 바꿔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은?

- ① 명심(銘心)해야
  - ② 유의(留意)해야
  - ③ 주의(注意)해야
  - ④ 기억(記憶)해야
  - ⑤ 각심(刻心)해야
- 

정답은?

'② 유의(留意)해야' 입니다.

제시문에서 '유념(留念)'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함'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유의(留意)'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의 뜻으로

'조심(操心)하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온화한 낫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써 간(諫)하여 반복 개진(開陳)하여야 함'을

조심(操心)하는 것은 문맥상 옳바르지 않습니다.

(추가)

③번 선지의 '주의(注意)'도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함**'이라는 뜻이 있지만

'어떤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정리 vs 정돈

'정리'는 '정돈'을 포괄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정리'는

1. [정비]의 뜻으로 쓰일 수 있고  
---> 제도 정리
2. [청산]의 의미로 쓰일 수 있고  
---> 관계 정리
3. [처분]의 의미로 쓰일 수 있으며  
---> 그 골칫거리들 전부 정리해버렸어.
4. [정돈]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책상 정리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이,

'정돈'의 경우는 '정리'와 달리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놓음'의 의미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이티브적인 감각으로

제도 정돈, 관계 정돈...등은 어색하긴 하지만

정리와 정돈의 뜻을 같다고 생각해버리면

'어? 제도 정리, 관계 정리는 말이 되는데 정돈도 되겠네?'

하면서 엉뚱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본용언 vs 보조용언

해야 (띄우고) 한다.

무조건 띄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뒤에 '한다'는 보조 용언 아닙니까?

보조 용언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본용언과 보조 용언 관련 오개념인데요.

사실 수많은 강사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본용언과 본용언은 띄워 써야 하지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라구요.

한글 맞춤법 제 47항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1. 연결 어미 '-아/어' 뒤에 오는 보조 용언

ex) 예뻐하다 = 예쁘-(어간) + -어-(연결 어미) + 하다(보조 동사)

2. 의존명사 뒤에 오는 보조 용언 '하다/싶다'

ex) 비가 올듯하다. = 듯(의존 명사) + 하다(보조 동사)

위의 두 가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보조의 결합이더라도 띄워 써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본+보조의 결합이

저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쉽게 본+보조는 붙여 쓸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문법이 점점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고

(지문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배경 지식도 점점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의 '한다'는 보조 용언이나

이를 형태소 분석해보면..

하-(어간) + -어야-(연결 어미) + 하-(보조 동사의 어간) + -ㄴ-(선어말 어미) + -다(보조 동사의 어미)

보조 동사가 연결 어미 '-어야-'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띄워 써야 하는 것입니당.

혹시나 띄어쓰기.. 저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학교에서 첫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띄어쓰기가 '해야 한다'와 '수밖에' 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지시대명사 띄어쓰기

오늘은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띄어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테스트 해볼게요!

다음 중 맞춤법상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1. 저때가 대체 언제였지?
2. 그만 포기해... 이 날 이 때까지 기다렸으면 됐어.
3. 그사람은 왜 이렇게 늦는대?
4. 아 줌! 이날 저날 하지마.
5. 이 것은 사과이다.
6. 그 때, 그 사람이 나타났다.
7. 그 해는 내 인생 최악의 해였어.

없습니다!

올바른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ㅠ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시대명사 '이', '그', '저'는 기본적으로 뒷말과 띄어씁니다.

그 사람 (O)

그사람 (X)

저 여자 (O)

저여자 (X)

이 책 (O)

이책 (X)

그러나, 지시대명사와 다른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로 굳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저것'

'그것'

'이놈(년)'

'저놈(년)'

'그놈(년)'

이런 것들이 그 예죠.

일상에 자주 쓰이는 저 아홉 가지 표현은 알아두세요.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때'와 '이때'는 한 단어인데, '저 때'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날'과 '이날'은 한 단어인데, '저 날'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해'는 한 단어인데, '이 해'와 '저 해'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이'는 한 단어인데, '이 이'와 '저 이'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세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두세'는 한 단어랍니다 ㅎㅎ)

읽어보시고 위에 테스트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럴 때 쓰이는 '한번'은 한 단어랍니다 ㅎㅎ)

아 참. 요즘 웹툰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게..

'그들'을 '그 들'로 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들'은 접사니까 당연히 앞말에 붙여써야 합니다.

딱 봐도 어색한데 왜 저렇게 쓰시는 건지ㅜㅜ

## 김씨 vs 김 씨

[한글 맞춤법 제 48항]

성과 이름, 호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쓴다.

김선생 (X)

김 선생 (O)

민준씨 (X)

민준 씨 (O)

박대통령 (X)

박 대통령 (O)

(심화)

'김 씨'와 '김씨'는 모두 올바른 표기예요.

다만 그 뜻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김 씨'의 '씨'는 호칭어로서 어떤 지칭 대상을 나타내구요.

(이때, '씨'는 의존명사)

'김씨'의 '씨'는 성씨 자체를 나타냅니다.

(이때, '씨'는 접사)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엔 김씨가 가장 많다.

----> '김'이라는 성씨 자체를 나타냄.

김 씨가 많이 아픈 모양이더라.

----> '김 씨'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함.

## 의존명사 '듯' vs 연결어미 '-듯'

오늘은 '듯' 띄어쓰기를 다뤄볼건데요.

어려울 듯하지만 누워서 떡 먹듯 할 수 있어요.

'듯'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존명사 '듯'과 연결어미 '-듯'인데요.

뜻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품사로 구별해 주어야 해요.

의존명사 '듯'은 잘 아시듯, 앞말과 띄워 씁니다.

그리고 그 앞말은 '관형어'겠지요.

앞말이 '관형어'일 때는, '듯'을 앞말과 띄워 씁니다.

ex) 하늘을 나는 듯하다.

연결어미 '-듯'은 잘 아시듯, 앞말과 붙여 씁니다.

그리고 그 앞말은 '용언 어간'이겠지요.

앞말이 '용언 어간'일 때는, '-듯'을 앞말과 붙여 씁니다.

ex) 그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라.

너무 쉽죠?

어려울 '듯'하지만 누워서 떡 먹'듯' 할 수 있었죠?

# 잘하다 vs 잘 하다

가끔, '잘 하다'가 올바른 표기인지

'잘하다'가 올바른 표기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둘 다 올바른 표기입니다.

다만 쓰임의 차이가 있어요.

## 잘02 「부사」

- 「1」옳고 바르게.
- 「2」좋고 훌륭하게.
- 「3」익숙하고 능란하게.
- 「4」자세하고 정확하게. 또는 분명하고 또렷이.
- 「5」아주 적절하게. 또는 아주 알맞게.
- 「6」아무 탈 없이 편하고 순조롭게.
- 「7」버릇으로 자주.
- 「8」유감없이 충분하게.
- 「9」아주 만족스럽게.
- 「10」예사롭거나 쉽게.
- 「11」기능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 「12」친절하게 성의껏.
- 「13」아주 멋지게. 또는 아름답고 예쁘게.
- 「14」((흔히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충분하고 넉넉하게.

## 잘하다 「동사」

### [1] 【…을】

- 「1」 옳고 바르게 하다.
- 「2」 좋고 훌륭하게 하다.
- 「3」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 「4」 버릇으로 자주 하다.
- 「5」 음식 따위를 즐겨 먹다.

[2] 「1」 (반어적으로)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2」 ((주로 '잘하면' 꼴로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 앞에 쓰여)) '운이나 여건 따위가 좋으면', '여차하면'의 뜻을 나타낸다.

「3」 ((주로 '잘해서', '잘해야' 꼴로 쓰여)) '넉넉잡아서', '넉넉잡아야', '고작'의 뜻을 나타낸다.

### [3] 【…에게】

친절히 성의껏 대하다.

헐...

뜻이 엄청 많죠?

저걸 다 외워서 구별하나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하다'에 없는 '잘'은 띄워 써야 한다.

평소에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그 쓰임이 헛갈릴 때

사전에 '잘하다'의 뜻을 찾아서

'잘하다'와 '잘 하다'를 구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에 사전을 볼 수 없는

수험생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잘하다'의 뜻을 모두 암기해야 해요.

그러나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쓰이는 것만

암기하도록 합시다.

'잘하다'에 없는 '잘'의 뜻 중에서

실생활에 가장 자주 쓰이는 두 가지.

**잘02** 「6」아무 탈 없이 편하고 순조롭게.

**잘02** 「10」예사롭거나 쉽게.

이 두가지만 암기해두도록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영희 덕분에 여행을 잘 할 수 있었다.

---> **잘02** 「6」아무 탈 없이 편하고 순조롭게.

그는 술만 마시면 평소에 안하던 말도 잘 하곤 했다.

---> **잘02** 「10」예사롭거나 쉽게.

이 외의 경우는

'잘 하다'가 아닌 '잘하다'를 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의 뜻만 알아두면

헛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다'의 뜻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뜻도

딱 두 가지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잘하다

「2」좋고 훌륭하게 하다.

「3」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 실력이 좋다.

잘하다

「4」버릇으로 자주 하다.

「5」음식 따위를 즐겨 먹다.

----> 자주 하다.

이 정도면 웬만한 문장들은

모두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 제목의 '잘 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나,

잘하면 당첨도 되겠는데? 처럼

'여차하면'의 뜻으로 쓰일 때나,

잘해야 1000원이네.. 처럼

'기껏해야'의 뜻으로 쓰이는 등

좀 원래의 의미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잘 하다'가 아닌 '잘하다'를 써주세요.

오늘의 어휘 여기서 마칩니다.♥

## 졸업년도 vs 졸업 연도

오늘 주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년도'와 '연도'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퀴즈 풀어보고 설명할게요!

다음 중 맞춤법상 틀린 표현을 모두 고르시오.

1. 졸업년도를 정확히 기입하세요.
2. 2016년도 XX대 축제 안내문
3. 2017학년도 수능은 역대 최고난도였습니다.
4. 작년도 XX대 정시 입결
5. 올년도 XX대 정시 예상 입결
6. 제작연도 : 2005

정답은?

1,5,6번 입니당!

혹시 모두 맞으신 분, 존경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년도 : [의존명사] ((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

연도 : [명사]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

뭔가 감이 오시나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차이는

'의존명사'와 '명사'라는 것일텐데요.

이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앞말과 픽워 써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차이일까요?

바로,

'년도'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앞말이 ((해를 뜻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1997년도 / 1997 연도

'1997'은 누가 봐도 ((해를 뜻하는 말))이죠?

따라서 1997년도 라고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추가 설명드리자면

단위성 의존명사 '마리, 개, 대, 차, 년도' 등은

앞말과 띄워 쓰는 것이 띄어쓰기의 원칙이에요.

한 마리, 두 개, 몇 대, 1 차, 1997 년도

다만, 앞말이 숫자인 경우에만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요.

1마리, 2개, 50대, 1차, 1997년도 처럼요.

자. 그럼 다시,

졸업년도 / 졸업 연도

무엇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졸업'을 ((해를 나타내는 말))로 인정할 수 있나요?

좀 어렵지요?

이런 경우는 '년도'가 아닌 '연도'로 표기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애초에 '년도'로 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졸업년도'가 아니라 '졸업 년도'가 되어야 해요.

(의존명사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지도 모르겠네요.

'학년도'는 뭐죠? '학 년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는 뭐죠? '금 년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학년도'와 '금년도'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학년도'는 '학 + 년도'가 아니라 '학년 + -도'이기 때문에

'학 년도'가 아니라 '학년도'가 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금년도' 그리고 '작년도'도 같은 원리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작 연도', '제작연도' 중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인지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죠?

단어끼리는 띄워 써야 하잖아요!

'제작 연도'가 올바른 표기예요.

아. 그리고 이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인데

'회계연도'는 올바른 표기가 될 수 있어요.

'회계연도'자체가 전문어 띄어쓰기 허용에 따라

사전 등재어, 즉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 '회계 연도' 모두 올바른 표기예요.

헤헤. 너무 어렵나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너무 까다로운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대략의 원리와 사례들만 외워두시면

헛갈리진 않을거예요!

오늘의 어휘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 터울 vs 차이

터울 : 한 어머니의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의 나이 차이  
---> '친형제'에만 사용 가능.

개들은 멤버끼리 한 살 터울이라며? (X)

개들은 멤버끼리 한 살 차이라며? (O)

연년 터울로 팔남매 (O)

연년 차이로 팔남매 (O)

형과 나는 두 살 터울이야. (O)

형과 나는 두 살 차이야. (O)

## 걸맞는 vs 걸맞은

오늘도 간단한 퀴즈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1. 니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좀 보여봐.
2. 걸맞은 결혼
3. 학생 신분에 알맞는 옷차림
4.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5. 맞는 말이야.
6. 50점 이하로 맞은 사람, 앞으로 나와.

정답은..?

2,4,5,6번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문장이 좀 많죠?

오늘도 단어의 뜻부터 짚고 들어갈게요.

결맞다 : [형용사]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

알맞다 : [형용사]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

맞다 : [동사] 뜻이 너무 많아서 생략.

자. 어쨌든 감이 오시나요?

[형용사]와 [동사]를 적은 이유가 뭘까요?

[형용사]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ㄴ', '-은'이 쓰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ㄴ', '-은', '-는'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걸맞다', '알맞다'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일 수 없고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여서

'걸맞은', '알맞은'과 같이 쓰입니다.

반면 동사인 '맞다'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은'이 모두 쓰일 수 있어서

현재 시제의 동사 어간에는 '는'

과거 시제의 동사 어간에는 '은' 을 써줍니다.

그래서 '맞는', '맞은'과 같이 모두 쓰이는 것이죠.

자. 이해 되셨나요?

어 혹시 뭔가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나요?

분명 있을텐데..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로 쓰일 수 있으니까

'있는', '있은'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지만

'없다'는 '죽다'라는 뜻의 동사를 제외하면

모두 형용사로만 쓰일 수 있는데

왜 '없는'이라고도 쓰이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표현인가요?

헤헤. 저도 궁금해서 국립국어원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없다'의 경우 유일하게 어미 '-는'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네요!

문법의 세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엄격한 룰이 있기는 하지만

그 룰에 벗어나는 언어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경우

룰에는 벗어나지만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더라구요.

'자장면'과 '짜장면'처럼요.

'꺼리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꺼려 하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꺼리다'라는 표현을 써야하는 게 맞지만

'꺼려 하다'라는 표현도 비표준어로 보기는 힘들다는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뭇한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명백한 오용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두 공부하는 게 맞겠죠.

오늘의 어휘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당^^

## 밀어붙이다 vs 밀어부치다

오늘도 좀 애매해용 -스-

'붙이다'와 '부치다'의 구분은 아마 잘 하실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붙게 하다'로 고쳐말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붙이다'

어색하면 '부치다'

또는 영어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설명도 있더군요.

'Attach'의 느낌이면 '붙이다'

'Attach'의 느낌이 아니면 '부치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붙였어/부쳤어).

나는 거기에 조건을 (붙였어/부쳤어).

정도는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합성동사에요.

1. 쏘아붙이다 vs 쏘아부치다
2. 밀어붙이다 vs 밀어부치다
3. 걷어붙이다 vs 걷어부치다
4. 벗어붙이다 vs 벗어부치다

어머나.. 어려워라..

이게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발음 때문인데요.

실제로 발음은 <표준발음법 13항>에 의해

붙의 받침 'ㅌ'이 연음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후자처럼 발음돼요.

그러나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는

저 넷 중에서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

히히 넷 다 전자이거나 넷 다 후자일 줄 알았죠??

뭐가 전자의 표기가 맞는 유일한 하나일까요?!



4번입니다!

힘차게 대들 기세로, 벗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힘차게 벗을때만

'부치다'라고 표기하게 되네요 π.π

합성동사에서 뒷말을 '붙이다'로 표기할지

'부치다'로 표기할지에 관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단어가 원래 그런거래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붙이다'로 표기한답니다.

'벗어부치다'처럼 '부치다'라고 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네요!

'벗어부치다'정도만 예외적으로 기억해두시면 되겠네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벗ㄷ..

## 베끼다 vs 배끼다

오늘은 '베끼다 vs 배끼다' 인데용.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독 경상도분들이

'배끼다'라고 오용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벗기다'의 방언이 '배끼다'더군요!

그(녀)의 옷을 배꼈다? 라는 정도로 쓰이더라구요!

경상도 분들은 '베끼다'와 '배끼다'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베끼다 : 글이나 그림 따위를 원본 그대로 옮겨 쓰다

배끼다 : '벗기다'의 경상도 방언, 다른 뜻은 없음

내 답 베끼지 마 (O)

내 답 배끼지 마 (X)

## 좏다 vs 좏다

### 좏다

1. '관념적인 대상'을 따르다.  
ex) 목표, 이상, 뜻, 생각, 관습, 이론
2. 눈여겨보다.

좏다 : '물리적인 대상'을 따르다.

너의 꿈을 좏거라. (X)

너의 꿈을 좏다. (O)

스승의 학설을 좏다. (X)

스승의 학설을 좏다. (O)

시선은 하늘의 까마귀만을 좏고 있었다. (X)

시선은 하늘의 까마귀만을 좏다. (O)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를 좏아 나갔다. (O)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를 좏다. (X)

보통 '좏다'를 써야할 경우에

'좏다'를 오용하지는 않는데,

'좏다'를 써야할 경우에

'좏다'를 오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 꽃다 vs 꽃다

꽃다 : 쓰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표준국어대사전)

꽃다 : 존재하지 않는 말.

조심히 꽃아놔. (X)

조심히 꽃아놔. (O)

연필꽃이(X)

연필꽃이(O)

염통꼬치(O)

염통꽃이(X)

염통꼬지(X)

염통꽃이(X)

## 머지않아 vs 머지 않아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뜻을 가진 '머지않아'는 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붙여써야합니다.

머지 않아 나와 만나게 될 거야. (X)

머지않아 나와 만나게 될 거야. (O)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아 만나게 될 거야. (O)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멀지않아 만나게 될 거야. (X)

## 꼼꼼이 vs 꼼꼼히

오늘은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당.

이게 사설에서 몇번 물어본적 있기는 한데,

과연 평가원에서 물어볼지는.. 미지수예요.

맞춤법중에서도 가장 난해한거라 ㅠㅠ

바로 '부사화접사 이/히 구분'인데요.

한글맞춤법 51항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 분명히 '이'로 발음나는 것은 '이'로 표기하고, '히'로만 발음나거나 '이'와 '히'로 모두 발음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게 참 애매하죠.

촉촉히 / 촉촉이

둘 다 발음나는 것 같은데 '이'가 올바른 표현이구요.

깊숙히 / 깊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가 올바른 표현이구요..

발음이라는게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나 마나인...

이렇게 너무 불분명하니까..

대중이 이들을 구분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명확한 구분이 있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국립국어원에서 데이터를 종합해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주긴 정해줬습니다만...

이것도 공식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구분법을 정확히 배우고

그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게 아니라

대강의 구분법을 알기만 해놓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론부터가 뭐이리 장황해..?)

ㅋㅋㅋㅋ그럼 먼저, 네이티브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다음 문장들의 O/X를 판별하세요.

1. 식탁을 [깨끗이] 닦으렴.
2. 야! [느긋히] 좀 가자.
3. 그는 [외로이] 걸어가고 있었다.
4. [곰곰히] 생각해봐.
5. 그 자를 [살살이] 뒤흔다.
6. [꼼꼼히] 살펴봐.
7. 그는 [쉴쉴이] 돌아갔다.
8. 그녀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9. 고양이가 [납작이] 엎드렸다.
10. 눈이 [수북히] 쌓였네.



으익ㅋㅋㅋ 너무 어려운가요?

넘나 어려운것...

1. O

2. X

3. O

4. X

5. O

6. O

7. X

8. X

9. O

10. X

몇개나 맞추셨나요?

자신의 네이티브적 감각은 믿을만한가요? ㅎㅎ

자. 오늘의 목표는 저 10가지 사례를 모두 외우는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구분법 1]

•순우리말 ----> '이'

•한자어 ----> '히'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할 구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법이니, 이는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뒤에가서 볼게요.

사실 한자어인지 우리말인지도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이 하나의 구분법으로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더 배워볼게요.

[구분법 2]

•'ㅅ'받침 뒷말 ----> '이'

'ㅅ'받침의 한자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ㅅ' 받침의 뒷말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1번 '깨끗이'

\*2번 '느긋이'

(+ '산뜻이')

[구분법 3]

'ㅂ' 불규칙 용언 뒷말 ---> '이'

마찬가지. 'ㅂ' 불규칙 용언 중에 한자어는 거의 없어요.

이건 네이티브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3번 '외로이'

(+ 너그러이)

[구분법 4]

(준)첩어 뒷말 ---> '이'

첩어가 한자어가 아닌 것은 자명하겠지요??

\*4번 '곰곰이'

\*5번 '살살이'

(+ 날날이)

[#구분법 4-1#]

(준)첩어 중, '하다'가 붙는 용언어간 뒷말 ---> '히'

곰곰하다(X), 살살하다(X)와 같이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첩어들도 있지만

꼼꼼하다(O), 쓸쓸하다(O)와 같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첩어용언어간이 있습니다.

애들의 경우는 '하다'의 'ㅎ'을 살려 '히'로 해주어야 해요.

\*6번 '꼼꼼히'

\*7번 '쓸쓸히'

(+ 당당히)

###구분법4-1-1###

첩어용언어간 + '히'의 예외. ---> '이'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첩어용언어간이라도 '이'가 붙는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은 워낙 희귀하니까 두개만 외우시면 돼요.

\*8번 '축축이'

(+ 축축이)

자 구분법은 끝입니다.

(엥?? 아직 9번 10번은 설명안했는데요??)

9번과 10번은 [구분법 1]을 적용시켜 보세요.

딱 봐도 우리말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항.. 그래도 헛갈리실거 같아서 몇가지만 외워줍시다.

\*9번 '납작이'

\*10번 '수복이'

(+ 깊숙이)

자 이렇게 4개의 구분법

2개의 예외 구분법

16개의 예시를 배웠습니다.

예시는 메모해두고 시간날때마다 10번 소리내 읽으세요

만약 출제가 되면!

다른 학생들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고민하다가,

심적으로 당황해서 속으로 평가원을 욕하며,

시간도 날리고, 그 다음 문제들도 날리고, 결국 그 문제까지 날릴 동안

우리는 '뭐야? 당연한거잖아?' 하며

손쉽게 넘어가고 있을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몇개만.

[끔찍이/끔찍히]

[뼈죽이/뼈죽히]

[큼직이/큼직히]

[나른이/나른히]

[가만이/가만히]

[고요이/고요히]

등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헤헤헤헤

설마 틀리시진 않겠죠?

위에 3개는 '이'

밑의 3개는 '히' 입니다.

[구분법 1]로 구분해주는건데요.

(어! 밑에 3개는 우리말 아닌가요?!)

우리말 맞습니다.

[구분법1]에서 말한 예외놈들인데요.

순우리말인데도 '히'를 써주는 놈들은

1.첩어용언어간 들과 2.나가고삼총사 밖에 없어요!

('나'른히, '가'만히, '고'요히 ---> 나가고 삼총사)

나가고 삼총사는 벌써 외워졌지요?

구분법 총6개, 예시 16개, 나가고삼총사!

기억해주세요~~~

저번에 부사화접사 '이/히'의 구분법을 대강 다뤄봤는데요.

역시나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어려운 주제이다보니까

질문들이 많네요..

먼저 명심하셔야 할 것은,

부사화접사 '이'와 '히'의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분법에 어긋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냥 따로 외워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1. 꼼꼼히

꼼꼼히에서 '꼼꼼'은 '꼼'이라는 단어 두개의 결합이 아니라

'꼼꼼'이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꼼꼼'자체를 첩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꼼꼼'에 '히'가 결합하는 것은

첩어용언어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꼼꼼'이 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꼼꼼'은 첩어가 올바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의 모 인기 블로그에 '꼼꼼'이 첩어가 아니라는 설명이 있던데, 그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신 것 같습니다.)

첩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형태라고만 기억해두세요..

국립국어원에서도 첩어의 범위는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2. 번번이

'번번'은 첩어용언어간인데

('번번하다'로 쓰일 수 있는데)

왜 '번번히'가 아니라 '번번이' 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번번히'와 '번번이'라는 단어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번하다'의 뜻을 사전에 검색하시면

'편편하고 반듯하다'의 뜻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번번히'는 '편편하고 반듯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와 별개로 '번번이'는 '번'의 뜻에서 유래하여

'매 때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뽁뽁이

뽁뽁이는 '뽁뽁하다'처럼 쓰일 수 있는

첩어용언어간인데 왜 '뽁뽁히'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첩어용언어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가 붙는 경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촉촉이', '촉촉이'와 함께 '뽁뽁이'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장본인 vs 주인공

오늘의 어휘는 아주 친숙한데요.

<장본인 vs 주인공> 이에요.

네이티브라면 감으로 척척 맞힐 수 있을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사실 이정도는 네이버에만 쳐봐도 구분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역시나,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그 대부분의 구분기준은 틀렸다는 사실...

아마 블로그나 기사같은 경우는 수험생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루어주지 않는거 같아요.

서론이 길었네요.

자. 오늘도 먼저 예시문장들과 함께 시작합시다!

다음 문장들의 O,X를 판별해보세요.

- 1.내가 바로, 그 도둑을 잡은 장본인이다!
- 2.행운의 주인공
- 3.이렇게 사단을 내어 놓은 장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 4.히어로영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히어로다.
- 5.그는 무장 공비를 토벌한 주인공이었다.
- 6.비운의 장본인

정답은..?

6번은 X, 나머지는 모두 O입니다!

아마 네이티브적인 감각에 의존해 판별하신 분들은

모두 쉽게 맞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으셨거나 틀리신분들이 네이티브가 아니란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선가 구분기준을 봤던 분들은

어 왜...?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대부분의 구분법은,

장본인 : 부정적인 상황

주인공 : 긍정적인 상황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내가 바로 그 도둑을 잡은 장본인이다! 문장은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저도 그 점에 의문을 품고, 국립국어원에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긍정 또는 부정의 맥락에서 그 사용의 제약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본인'은 맥락상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듯하며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인공'을 많이 사용하는 듯합니다."

----> 긍정or부정은 판단기준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별해주어야 할까요?

바로, '직접적인 행동의 여부'입니다!

'장본인'은 어떠한 일을 빚어낸 사람만을 지칭합니다.  
(직접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은 어떠한 일을 빚어낸 사람을 칭할수도 있지만

어떠한 일을 직접 빚어낸 사람이 아니더라도,

맥락상 어떤 일에 중심이 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주인공'이 '장본인'보다 더 넓은 뜻이 되겠지요.

그럼 오늘 예시들 정리하고 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바로, 그 도둑을 잡은 장본인이다!

---> 도둑을 직접 잡은 사람이다.

---> 주인공(O) / 장본인(O)

2. 행운의 주인공

---> 직접적인 어떤 행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주인공(O) / 장본인(X)

3. 이렇게 사단을 내어놓은 장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 사단을 내어놓은 사람이다.

---> 주인공(O) / 장본인(O)

4. 히어로영화의 주인공은 당연히 히어로다.

---> 직접적인 어떤 행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주인공(O) / 장본인(X)

5. 그는 무장공비를 토벌한 장본인이었다.

---> 무장공비를 토벌한 사람이다.

---> 주인공(O) / 장본인(O)

6. 비운의 장본인

---> 직접적인 어떤 행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주인공(O) / 장본인(X)

## 홀몸 vs 홀몸

홀몸 : 배우자, 형제가 없는 사람. '단신'의 느낌.

(\*단,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아내'는 부양가족의 느낌이 강함.)

홀몸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2.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

오늘은 홀몸 vs 홀몸 인데요.

홀몸과 홀몸1번뜻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구분법이라고 되어 출판된 책이나,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나름의 구분법들은

끊임없이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모두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틀렸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확답하지 못하고

'일반적이다.' '자연스럽다.' 등으로만 답변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분명 홀몸의 용례로

'사고로 아내를 잃고 홀몸이 되었다.' 문장이 있지만

국립국어원에 문의하면

아내는 부양가족의 의미가 강하므로 홀몸이 더 일반적이다.

라고 답변이 옵니다.

딱히 구분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뉘앙스상 '홀몸'하면 '외로운, 단신'정도의 느낌

'홀몸'하면 '부양 가족이 없는'정도의 느낌

뉘앙스상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틀린건 아닙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홀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예외적으로 확실히 틀린 용례를 제외하고는

홀몸과 홀몸은 대부분 서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다만 홀몸2의 경우는 뜻을 명백히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내 아내는 그렇게 쓰러졌고, 다음날 홀몸이 된 것이었다.(X)

내 아내는 그렇게 쓰러졌고, 다음날 홀몸이 된 것이었다.(O)

자. 그럼 다음 문장들이 옳은지 틀린지 판별해보세요.

1. 넌 흠뻑도 아닌데 음식 좀 가려먹어!
2. 처자식을 모두 잃고 흠뻑이 된 그는,
3. 나도 흠뻑이었으면 당장 그 일에 뛰어들텐데.



1.X

2.O

3.O

1번은 '홀몸2'의 뜻으로, '홀몸'을 쓰면 안됩니다.

2번,3번은 '홀몸' 또는 '홀몸1'을 쓸 수 있습니다.

# 매수

오늘은 구별어휘는 아닌데요.

평가원이 비문학에서 한 번 물어봤던 단어이고,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휘로 정했습니다!

바로 '매수'인데요.

다음 문장들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1. 유혹에 매수되어선 안돼.
2. 돈에 매수되어선 안돼.
3. 욕심에 매수되어선 안돼.
4. 여자에 매수되어선 안돼.

정답은...?

1,2,4번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욕심에 XXXX' 에서 XXXX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매수되어'가 올바른지를 물었었죠?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분들은

3번이 틀린 문장이란건 아셨을 겁니다!

근데 1,4번도 뭔가 틀린거 같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거예요!

'매수' 뜻을 볼게요.

매수 :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 따위에 넘어가 그 편이 되다

금품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수단에 넘어가는 것도

'매수'라고 표현하는군요?

아까 문장들 볼까요?

1. 유혹에 매수되어선 안돼.

---> '유혹'은 누군가를 꺾어내기 위한 수단이겠죠?

2. 돈에 매수되어선 안돼.

---> '돈'은 금품이잖아용? 쉽네요.

3. 욕심에 매수되어선 안돼.

---> '욕심'은 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4. 여자에 매수되어선 안돼.

---> '여자'로 누군가를 꺾어낼 수 있을거 같네요.

+) '남자에 매수되어선 안돼.'도 마찬가지겠지요?

매수

뜻만 잘 알고 계시면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안치다 vs 앉히다

옳은 문장을 모두 골라보세요.

1. 밥 좀 안쳐놓거라.
2. 밥 좀 앉혀놓거라.
3. 밥 좀 언쳐놓거라.
4. 밥 좀 엎혀놓거라.
5. 밥 좀 언저놓거라.
6. 밥 좀 엎어놓거라.

정답은...?

1번, 6번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왜일까요?

뜻부터 살펴 보아용.

(1) 안치다 : (끓이거나 찜 물건을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2) 앉히다 : '앉다'의 사동사 = 앉게 하다

(3) 언치다 : 없는 말

[참고 : 언치다 = 없히다의 옛말]

(4) 었히다 : '었다'의 피동사 = 었어지다.

[참고 : '었히지다'는 '었히어지다'의 준말로 이중피동임.]

[참고 : 체하다 = 었히다]

(5) 언지다 : 없는 말

(6) 었다 : 위에 올려두다.

1. 밥 좀 안쳐놓거라.

----> 밥을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려놓거라.

6. 밥 좀 었어놓거라.

----> 밥을 (그릇 따위의) 위에 올려놓거라.

기억하실 건 두 가집니다.

• 안치다 vs 앉히다

---> 둘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익혀두세요.

• 앉히다 vs 엮히다

---> 앉히다는 사동사이고 엮히다는 피동사예요.

## 회상? 상상? 환상?

오늘은 헛갈리는 어휘이기도 하지만!

특히 문학풀때 도움이 되는 어휘를 가져왔어용.

저도 <2012학년도 6월 모평> <화산택이,오영수>

작품을 분석하다가 정리하게 된건데요~

이거 다 읽고 직접 풀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거같네용.

먼저 뜻부터 보고갈게요!

**회상** :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상상** :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마음속으로 그려봄.

**환상** :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공상.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어때요? 뭔가 감이 잡히지요?

일단 '회상'과 '상상'은 확연히 다른 것이고

'상상'안에 '환상'이 포함되겠지요?



## 1. '회상 vs 상상

둘 다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떠올린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실제 경험했던 일'을 마음속으로 그리냐,

'경험하지 않은 일'을 마음속으로 그리냐의 차이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온 시골박이 할머니는,

상경하여 예쁜장한 아내를 만나 살림을 꾸리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도시로 올라간다.

휘황한 건물이며, 어디든 꼭 차 있는 자동차며,

할머니에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

심지어 모든 것이 두렵게도 느껴진다.

그런 할머니에게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반가워하긴 커녕 할머니를 냉대한다.

할머니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들은 어서 자라며 이부자리를 펴준다.

할머니는 애써 잠을 청하며, 눈을 감는다.

'시골집은 좋았는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정이 넘치는 이웃도 있고. 돌아 가고싶다.'

자. 이 때 할머니가 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회상인가요? 상상인가요?

당연히 회상이겠지요? '실제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만약 이런 선지가 있다면 어떤가요?

"할머니는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을 상상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있다."

틀린 걸 알겠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2. 상상 vs 환상

'상상'은 '환상'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상상은 '경험하지 않은 일'을 떠올리기만 하면 돼요.

반면 환상은

- (1) '경험하지 않은 일'을 떠올려야 하고,
- (2) '그 떠올리는 내용'이 비현실적이어야 해요.

어 쉽잖아요? 당연한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할머니의 예화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앞에 정겨운 풍경이 펼쳐진다.

[A] 관청 같은 집 말고, 빈대 피가 댕잇처럼 굵힌 토벽과 매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이 있는,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에서 아들은 썩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고, 며느리는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깎고 있다.

자. 이 때 할머니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상'은 아니겠죠?

'실제 경험했던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상상'인가요? '환상'인가요?

현재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환상이 맞나요?

어쨌든 미래에 저렇게 될수도 있으니까 환상이 아닌가요?

이런 선지가 있어요.

[A]부분은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할머니'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가요? 꽤 어렵지 않나요?

답부터 말하자면, 틀린 선지예요!

'상상'은 될 수 있지만 '환상'은 아닙니다.

문학에서 '환상'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 신비로운 것>

<현실적으로 미래에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

를 말합니다.

어떤 가난한 공장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합니다.

이때 상상은 환상으로도 볼 수 있나요?

없겠죠? 충분히,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상합니다.

물건이 말을 하고, 사람이 아무런 장치도 없이 날아다니네요.

이때 상상은 환상으로 볼 수 있나요?

있겠죠?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신분제가 탄탄하던 조선 초에,

노비가 매일 밤 평민이 되어 과거를 치르는 모습을 상상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애매하죠??

이렇게 '상상'인지 '환상'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 '상상'이라 볼 수도 있겠고

'회상'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평가원은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휴..

오늘은 좀 길었네용..

이렇게 심층분석을 하고 나서

<2012년 6월 모평> <화산댁이, 오영수> 문제를 푸시면

엄청 쉽게 느껴질겁니다!

# 떠다 vs 띄다 vs 띄우다

오늘은 '떠다' '띄다' '띄우다' 세 단어를 알아볼건데요.

사실 이 세 단어는 뜻이 너무 많아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쳐보면 줄줄 나올겁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헷갈릴만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어용.

## 띄우다01

: 편지,소포 따위를 부치거나 전해 줄 사람을 보내다.

ex) 아들아, 소포 하나 띄웠다.

## 띄우다04

[1] '뜨다13[7]'의 사동사.

(뜨다13[7] : 공간적으로 거리가 꽤 멀다.)

ex)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일정하게 띄워 심자.

[2] '뜨다13[8]'의 사동사.

(뜨다13[8] : 시간적으로 동안이 오래다.)

ex) 10분 간격으로 띄워서 출발해.

## 띄다01

: '뜨이다'의 준말.

(뜨이다 : 눈에 보이다, 남들보다 두드러지다.)

ex) 눈에 띄는 행동 좀 하지마.

## 띄다02

: '띄우다04[1]'의 준말.

ex)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일정하게 띄어 심자.

## 떠다01

[2] '무언가를' 지나다, 가지다.

ex)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후후.. 뭔가 복잡하죠?

체계적으로 암기해놓으세요! 도움될겁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들 O/X 해보세요.

1. 눈에 띄네.
2. 여긴 버스가 떠서 겨울엔 기다리기 힘들어.
3. 진수야, 띄워 쓰기를 제대로 안 했잖아.
4. 그 조개는 푸른 빛을 띄고 있었다.
5. 줄간격 툐다. 실시!
6. 야. 어제 내가 퐁 편지는 잘 받았냐?
7. 다음 수업까지 시간을 너무 퐁거 아니야?

ㅎㅎ 어렵종??

답은????????

1.0

2.0

3.0

4.X

5.0

6.X

7.X



## 놀라다 vs 놀래다

**놀라다** : 갑자기 뜻밖의 일을 당해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낌. (주동)

**놀래다** : 남을 놀라게 하다. (사동)

----> 피동형으로는 쓰일 수 없다.

어이구머니! 놀래라. (X)

어이구머니! 놀라라. (O)

우리 그를 놀래주자. (O)

우리 그를 놀래켜주자. (방언)

•참고

'에그머니나'는 '에구머니나'의 틀린말입니다.

에구머니나

----> '어이구머니나'의 준말.

어이구머니나

----> '어이구머니'를 강조하여 내는 말.

어이구머니

----> '어이구'보다 의미가 더 간절할때 쓰는 말.

## 졸이다 vs 조리다

### 조리다

:(국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짝 끓여 맛이 배어들게 하다.

### 졸이다

1.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분량이 적어지게 하다.
2. 마음을 초조하게 먹다.

에그머니나. 국이 바짝 졸았네. (O)

에그머니나. 국이 바짝 조랐네. (X)

찌개를 졸여야겠다. (O)

찌개를 조려야겠다. (X)

생선에 양념을 하여 졸였다. (X)

생선에 양념을 하여 조렸다. (O)

차레가 다가오자 나는 마음을 졸였다. (O)

차레가 다가오자 나는 마음을 조렸다. (X)

## 부딪히다 vs 부딪치다

부딪히다 : '부딪다'의 피동사.

부딪치다 : '부딪다'의 사동사.

지나가다가 책상에 부딪혔어. (X)

지나가다가 책상에 부딪쳤어. (O)

---> 내가 책상을 부딪게 한 것이므로 사동사.

승용차가 트럭에 부딪혔다.

---> 트럭이 승용차를 침.

승용차가 트럭에 부딪쳤다.

---> 승용차가 트럭을 침.

# 분철

질문에 답변하고보니 답변한 것이 아까워서 글로 올립니다.

본론부터 말하면요.

'너밖에'와 '너바께'는 모두 분철(=끊어적기)이에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분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분철 :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각각의 형태소를 '음절'이나 '성분'단위로 끊어적음. 또는 그 표기법

무슨말이냐구요?

'음절' 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는 것과

'성분' 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는 것은

모두 분철이 될 수 있다구요.

'너밖에'의 형태소를 분석해볼까요?

- '성분' 단위로 형태소를 분석하면

너 / -밖에

- '음절' 단위로 형태소를 분석하면

너 / 밖 / 에

나아가

- '성분' 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는다면

너/바께 '너바께'로 표기됩니다.

- '음절' 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는다면

너/밖/에 '너밖에'로 표기됩니다.

분철은 '성분'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는 것과 '음절'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는 것.

모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분'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은 '너바께'와

'음절'단위로 형태소를 끊어적은 '너밖에'는 모두 분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고교과정에서는 분철(=끊어적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철 : 받침을 가진 실질형태소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할 때,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를 구분해서 적는 방식.

따라서, 분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가 구분되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너밖에

---> 실질형태소 '너'와 형식형태소 '밖에'를 구분해서 적었으니 분철O

너바께

---> 실질형태소 '너'와 형식형태소 '바께(밖에)'를 구분해서 적었으니 분철O

몸이며

---> 실질형태소 '몸'과 형식형태소 '이며'를 구분해서 적었으니 분철O

모미며

---> 실질형태소 '몸'과 형식형태소 '이며'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분철X

## 살지다 vs 살찌다

### 살지다

1. 몸에 살이 많고 튼실하다.
2. 땅이 기름지다.

### 살찌다

1. 몸에 살이 많아지다.
2. (비유적으로, 특히 문학) 풍요로워지다.

살진 너의 몸을 봐. (O)

---> 살이 많은 너의 몸을 봐.

살찐 너의 몸을 봐. (O)

---> 이전보다 살이 많아진 너의 몸을 봐.

이런 살진 논밭이라면, 풍년은 당연하겠군. (O)

---> 기름진 논밭을 나타냄, 일상에서 쓰임.

이런 살찐 논밭이라면, 풍년은 당연하겠군. (O)

---> 이전보다 풍요로워진 논밭을 나타냄, 주로 문학에서 쓰임.

## 벌이다 vs 벌리다

### 벌리다

1. 둘 사이의 공간을 넓히다.
  2. 열어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3. 우므러진 것을 펴서 열다.
- > 진짜로 '잡아 벌리는' 느낌.

### 벌이다

1. 일을 베풀어 놓다.
2. 물건을 늘어 놓다.

일을 이렇게까지 벌려놓으면 어떡하니? (X)

일을 이렇게까지 벌여놓으면 어떡하니? (O)

---> 일은 '잡아 벌리는' 것이 불가능함.

---> '벌이다' 1번 뜻으로 적절함.

다리를 벌여놓고 말했다. (X)

다리를 벌려놓고 말했다. (O)

---> 다리는 '잡아 벌리는' 것이 가능함.

책상에 책을 벌여놓았다. (O)

---> 책상에 책을 늘어놓음.

책상에 책을 벌려놓았다. (O)

---> 책상에 책을 펴놓음.



## 이따가 vs 있다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와 '있다가'를 구분하는건데요.

집중하시고, 밑의 문장들 중 틀린 문장을 찾아보세요.

1. 우리 이따가 학원 앞에서 만나자!
2. 나는 여기 있다가 갈게.
3. 30분 이따가 학교 앞으로 와~~
4. 좀 이따가 갈게.

뭐가뭐가 틀렸을까요옹??

틀린문장은 3번뿐입니다.

왜죠?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있다**

1. 사람이나 동물이 머무르다.
2.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이따가**

1. 조금 지난 뒤에

'장소에 머무르는' 느낌이 강하면 '있다가'

'시간이 지난뒤에' 느낌이 강하면 '이따가'

**1번문장**

우리 (이따가/있다가) 학원 앞에서 만나자! 에서는

'시간이 지난뒤에' 만나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있다가'를 쓰기에는 어디에 머무르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 2번문장

나는 여기 (이따가/있다가) 갈게. 문장에서는

'장소에 머무르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에' 머무른다고 표시도 해 주었습니다.

1번문장은 알고 봐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학원 앞에서 만나자! 라고는 볼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맥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힘들죠..

시험(수능)에서는 문맥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는 단어의 구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번문장은 명확합니다.

'여기에'라는 말이 딱하니 나와있기 때문에

'장소를 머무르는' 느낌을 내포하는 '있다가'를 쓰지 않으면 명백히 틀립니다.

이는 시험(수능)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으면 '있다가'를 써야한다.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있다가' 2번 뜻을 보면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뜻도 있네요?

'있다가'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려면, 그 앞에 시간을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처럼요.

그리고 역으로

그 앞에 시간을 나타내줄 경우에는 반드시 '있다가'를 써야 합니다.

30분 있다가 만나자. 처럼요.

따라서 3번문장은 '이따가'가 아니라 '있다가'를 써주어야 합니다.

**4번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좀'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3번과 같이

좀 있다가 갈게. 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조금' 등에는 예외를 적용한 듯합니다.

맨 위 두번째 사진을 참고하시면,

'좀' '조금'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있더라도

문맥에 따라, '있다가'를 쓸 지, '이따가'를 쓸 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서 절대 물어볼 수 없어요.

후.. 오늘은 좀 많이 기네요ㅠㅠ

정리하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이따가'는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다가'는 장소에 머무르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들의 구분은 문맥에 의존해야 하지만,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2번, 3번인데요.

2. '여기에'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을 경우 '있다가'를 써주어야 합니다.

3. '30분', '한참'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있을 경우 '있다가'를 써주어야 합니다. ('좀', '조금' 등은 예외적으로 문맥상 판단해주어야 합니다.)

## 일체 vs 일절

일절 : (부사로만 쓰임) 금지, 부정문에 쓰임.

일체 : (명사, 부사로 쓰임) 긍정문에 쓰임.

출입을 일체 엄금합니다. (X)

출입을 일절 엄금합니다. (O)

걱정일랑 일체 털어버려라. (O)

걱정일랑 일절 털어버려라. (X)

## 심려 vs 염려

심려 : '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중인' 일에 대한 걱정.

염려 :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너무 심려마세요. (X)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너무 염려마세요. (O)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O)

이번 일로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X)

## 받치다 vs 받치다

이미 모의고사에도 여러번 등장한 '받치다vs받치다'예요.

너무 자주 나오다보니 '체'만 보면 무턱대고 '받치다'가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대기로 체를 받쳐 놓아라. (O)

작대기로 체를 받치 놓아라. (X) 예요.

뜻을 볼게요.

받치다 : (~을 ~으로) 어떤 물건의 밑이나 옆등에 다른 물건을 대다.

받치다 : (~을) 걸러내다.

이 두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받치다'에서는 목적어=(받침을 당할 물건)이에요.

'받치다'에서는 목적어=(걸러낼 물건)이에요.



따라서

'작대기로 체를 받쳐 놓아라.'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체'이므로 '받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체는 (받침을 당할 물건)이지, (걸러낼 물건)이 아니잖아요?

ex)

상추를 체에 받쳐놓았다. (O)

----> 상추=(걸러낼 물건)

냄비를 깔개에 받쳐놓았다. (O)

----> 냄비=(받침을 당할 물건)

술을 받쳤다. (O)

----> 술=(걸러낼 물건)

# 박이다 vs 박히다

## 박히다

1. '박다'의 피동.
2.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깊게 자리잡다.

## 박이다

1. '굳은살이 생기다'
2. '버릇, 생각, 태도'가 깊이 배다.

'박이다'와 '박히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분류해주어야 해요.

첫째로, 굳은살이 생긴 경우를 말할때는 '박이다'를 써주어야 해요. '박히다'를 쓰는 건 확실히 틀린거예요.

ex) 하.. 공부하다가 손에 굳은살 박힌것 좀 봐. (X)

하.. 공부하다가 손에 굳은살 박인것 좀 봐. (O)

두번째는,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사상, 이념' 따위의 거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때에는 '박히다'를 사용하구요.

'버릇, 생각, 태도' 따위의 비교적 작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때에는 '박이다'를 사용해요.

ex) 마르크스는 뱃속까지 공산주의 이념이 박혀있어. (O)

그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에만 박여있어. (O)

ex2) 그는 뱃속까지 개인주의가 박혀있어.

----> 그는 '개인주의'철학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는 뱃속까지 개인주의가 박여있어.

----> 그는 행동하는게 너무 이기적이야.

## 들리다 vs 들르다

들르다 : (지나는 길에) 잠깐 거치다.

### 들리다

1. '듣다'의 피동

ex) 나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린다.

2. '들다'의 피동

ex) 신부는 신랑의 한손에 들렸다.

3. '들다'의 사동

ex) 엄마는 나에게 가방을 들렸다.

핵심은 '잠깐 거치다'의 뜻을 가진 '들르다'를 '들리다'와 혼동하면 안된다는 거에용~~

엄마! 슈퍼 좀 들렀다 갈게~ (X)

엄마! 슈퍼 좀 들렀다 갈게~ (O)

가는 길에 서점 좀 들릴게. (X)

가는 길에 서점 좀 들를게. (O)

## 맞히다 vs 맞추다

오늘도 간단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 1.이 문제 맞추면 백만원 준다.
- 2.나를 바람 맞히다니...
- 3.그는 화살을 과녁에 맞추지 못했다.

(답은 0~3개로 자유로와요.)

정답은..?

2번 뿐입니다!

틀렸다고 낙심하지마요.. 이걸 사람들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ㅠㅠ

'맞추다'vs'맞히다'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맞추다** : "어떤 기준에" 맞게 하다.

**맞히다**

1."어떤 물체에" 맞게 하다.

2.물음에 옳은 답을 대다.

'맞추다'의 뜻과 '맞히다'의 1번 뜻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맞추다'의 '맞게 하다'는 조정의 의미

'맞히다'의 '맞게 하다'는 때리는 느낌?? 어떤 물체에 닿게 하는?? 의미

1. 이 문제 맞히면 백만원 준다. (O)

----> '맞히다' 2번뜻.

2. 나를 바람 맞히다니... (O)

----> '맞히다' 1번뜻.

3. 그는 화살을 과녁에 맞히지 못했다. (O)

----> '맞히다' 1번뜻.

+) 오늘 아빠랑 교복 맞추러 갈거야. (O)

----> '맞추다'의 뜻.

## 누출 vs 유출

오늘은 재미있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히히

다음 문장들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보세요!

- 1.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누출됐었다.
- 2.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누출됐었다.
- 3.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누출됐었다.
- 4.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누출됐었다.
- 5.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유출됐었다.
- 6.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유출됐었다.
- 7.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유출됐었다.
- 8.그거 알아? 이번에 시험문제가 유출됐었다.

정답은...?

2번과 6번은 O

나머지는 X입니당~~~

세 가지 맞춤법이 숨어 있는데요!

1.돼vs되

2.대vsदै

3.유출vs누출

1번은 저번에 다뤘봤구요!

2번도 웬만하면 아실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전할 때에는 'दै'

자신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들은 일을 전할 때에는 '대'

오늘 중요한건 3번인데요!

이 두 단어는 뜻의 차이는 거의 없어용.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도성'이에요.

그 일에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했다면 '유출'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면 '누출'을 사용해줍니당.

오늘 예문에서는 시험지가 누군가의 의도로 새어나간건지, 자연스럽게 새어나간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되는것이랍니다!!

## 담가놓은 vs 담귀놓은

'담그다.'의 어간 '담그-'

'담그-' + '-아' = 담가

'담그-' + '-았-' + '-다.' = 담갔다.

담귀놓은 된장 좀 가져오너라. (X)

담가놓은 된장 좀 가져오너라. (O)

나는 접시를 물에 담궜다. (X)

나는 접시를 물에 담갔다. (O)

마찬가지로 '잠그다'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 꺾데기 vs 꺾질

꺾데기 : 딱딱한 피질

꺾질 : 부드러운 피질

굵은 꺾데기가 얇은 것으로 고르렴. (X)

굵은 꺾질이 얇은 것으로 고르렴. (O)

조개 꺾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O)

조개 꺾질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X)

## 되 vs 돼

1. '되-'는 어간이므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문장 끝, 종결어미 '요.'앞에서는 '돼')

ex) 안돼.

ex2) 안돼요.

2.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되어'를 넣어말할 때 어색하면 '되')

ex)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O)

    훌륭한 사람이 되어거라. (X)

ex2) 쫓쫓, 어찌 저리 안됐노. (X)

    쫓쫓, 어찌 저리 안되었노. (O)

    쫓쫓, 어찌 저리 안됐노. (O)

3. 그래도 안되면 되/돼를 하/해로 바꾸어 본다.

('하'가 익숙하면 '되', '해'가 익숙하면 '돼')

ex) 나는 해적왕이 할테야. (익숙O)

    나는 해적왕이 헬테야. (익숙X)

## 개발 vs 계발

**개발** : 개척하여 발전시킴.

**계발** : 깨우쳐 열어줌. 일깨움.

국토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 (O)

국토 계발이냐, 환경 보존이냐! (X)

자기개발에 힘쓰거라. (O)

자기계발에 힘쓰거라. (O)

## 금새 vs 금세

금새 : 물건의 값. 또는 물건 값의 싸고 비싼 정도.

금세 : 지금 바로. '금시에'의 준말.

금새 그걸 다 먹어치웠니? (X)

금세 그걸 다 먹어치웠니? (O)

요즘 감자 금새가 어떻게 되니? (O)

요즘 감자 금세가 어떻게 되니? (X)

## 결제 vs 결재

**결재** : 아랫사람이 올린 안건을 상관이 헤아려 승인함

### 결제

1. 결정하여 끝냄
2.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사장님, 안건을 결재해 주십시오. (O)

사장님, 안건을 결제해 주십시오. (O)

대금을 결재해 주십시오. (X)

대금을 결제해 주십시오. (O)

## 견잡다 vs 겹잡다

견잡다 : 잘못된 일을 바로잡다.

ex) 일이 견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겹잡다 : 어림잡다.

ex) 겹잡아 보면 100장쯤 되겠네.

## 갱신 vs 경신

갱신 : 계약 등을 연장하다.

경신 : 기록을 갈아치우다.